

저는 predictive analytics & decisions 패턴을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패턴을 금융분야에 적용해본다면, 기업의 정보들을 이용해 해당 기업의 부도가능성을 예측해보고 투자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지표, 시장지표 등을 이용해 부도확률을 예측하여 신용 등급을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연구를 참고하면, 모델의 입력값으로는 신용스프레드, CDS 스프레드, 거시경제 변수 등으로 구성된 과거 일정 기간의 다차원 금융 시계열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시계열 딥러닝 모델(LSTM, GRU, TCN 등)은 이러한 입력을 바탕으로 향후 1개월에서 12개월 이후 신용스프레드의 상승 또는 하락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논문보기](#) - DBpedia)